

第 62 回 1 級 : 聞きとり・書きとり記述式問題の解答

(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正答とします)

7 文장의 일부를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

<2 点×4 問>

1) 어쩌다 내가 ①(손에 물이라도 묻힐라치면) 어머니는 ②(필쩍 뛰신다.)

→ たまに私が①(水仕事でもしようとする)、母は②(ひどく怒るのだ。)

2) ①(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행태를 ②(용납해서야 쓰겠나.)

→ ①(理由のいかんを問わず)そのような振る舞いを②(許してはならない。)

3) 나도 ①(어지간하면) 참겠는데 ②(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어.)

→ 私も①(ある程度のことなら)我慢するけど②(あまりにもどかしいからなのよ。)

4) ①(부모의 내리사랑만한) 헌신이 ②(또 어디 있으랴.)

→ ①(子を思う親心に勝る)献身が②(他にあるだろうか。)

8 文장의 일부를 한글로 받아쓰십시오.

<2 点×4 問>

1) 영 ①(찹찹하니까) 구석구석까지 ②(살살이) 살펴 보게.

2) ①(듬직한) 체격에 ②(나긋나긋한) 말씨까지 더해져 인기 급상승이다.

3) ①(곧이곧대로) 말했다가 되레 ②(영망진창으로) 꼬여 버렸다.

4) 뭐가 그리 ①(쑥스러운지) 연신 뒤통수를 ②(긁적거렸다).

第 62 回 1 級 : 筆記記述式問題の解答

(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正答とします)

13] 다음 문장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

<2 点×4 問>

- 1) 하지도 못할 거면서 입만 살아 가지고 여기저기서 떠벌리고 다닌다.
→ できもしないくせに口だけ達者であちこちでホラをふいている。
- 2) 엄동설한에도 꽃을 피우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 寒さの厳しい冬にも花を咲かせるとはただ驚くばかりです。
- 3) 입추의 여지 없이 들어찬 관중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 ぎっしりと埋め尽くされた観客の糸乱れぬ動きはまさに壮観だった。
- 4) 이 상품은 입맛이 고급인 우리 집 강아지를 정조준한 것 같다.
→ この商品は舌の肥えたうちのワンちゃんを狙い撃ちしたみたい。

14] 다음 일본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 답은 하나만을 한글로 쓰십시오.

<2 点×4 問>

- 1) 父の言葉から迷いやためらいを感じたことは一度たりともなかった。
→ 아버지의 말씀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 2) 藪から棒にというけど、とんだ災難だね。
→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웬 날벼락이람.
- 3) 生まれながらの芸術家だと口をそろえて持ち上げた。
→ 타고난 예술가라고 입을 모아 추켜세웠다.
- 4) 彼のような切れ者でも太刀打ちできない相手だった。
→ 그와 같은 실력자라도 당해 낼 수 없는 상대였다.